

평신도

2017년 봄



「Vol.55」

- 인사 회장 인사말
- 만남 김광현 대전평협 회장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나눔 평신도 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 이야기 북한생활 체험기4
- 특별기고 시복식 참가기
- 배움 평신도 양서 수도회 영성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소식 교구평협·회원단체

요한 세레자 구상	이나시오 김구정	가이오 김금룡	박병래 요셉	아우구스티노 양한모

불꽃이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향기가

되어 2

■ 구상 요한 세레자 시인 겸 언론인, 교수로 재직하며 40여 권을 내놓으면서 구도 시인으로서 문학적 삶을 꽃피웠다.

■ 김구정 이나시오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에 여생을 바친 교육자, 교회사 연구와 집필에 열중하면서 여생을 바쳤다. ■ 김금룡 가이오 레지오 마리에의 초석을 놓은 기도의 일꾼. 목포 산정동본당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레지오 마리에 프레스 디움을 발족했다. ■ 박병래 요셉 성모병원의 기초를 다진 의사. 1936년에 설립한 성모병원의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해 20년간 봉직하면서 병원의 기틀을 다졌다. ■ 양한모 아우구스티노 공산주의자였다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평신도 신학자. 가톨릭에 귀의한 후에는 평신도신학과 통일 사목을 화두로 삼아 연구했다.

책값: 13,000원 역은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펴낸곳: 도서출판 으뜸사랑 판매처: 가톨릭출판사 직영서점, 인터넷서점(예스24, 인터파크, 영풍 등)

2017년 봄 계간 55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CONTENTS

-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8 평신도가 된다 / 권지영

- 특집 11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 서상덕
15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김문태

- 나눔 19 평신도 연구/ 이화우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 이창훈

- 이야기 24 북한생활 체험기4 / 박정일

- 특별 기고 28 시복식 참가기 / 강우일

- 배움 30 평신도 양서 / 류주희
32 수도회 영성 / 김혜숙
35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 소식 39 교구평협 · 회원단체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편집위원 권지영 테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류주희 클로틸다,
명백훈 프란치스코, 서상덕 스테파노,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회장 인사말

우리 평신도들의 희년을 살아야 합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 18-19).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나자렛의 회당에 들어가시어 펼쳐 읽으신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절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위의 61장 1-2절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냇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부르도록 하셨다. 그들은 옛 폐허들을 복구하고, 오랫동안 황폐한 곳들을 다시 일으키리라. 폐허가 된 도시들, 대대로 황폐한 곳들을 새로 세우리라”(이사 61,3-4).

한국평협 창립 50주년(희년)을 앞두고

교회는 안식년인 7년이 7번 더한 해의 다음해를 희년(Jubilation-기쁨)으로 지냅니다. 이 희년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기념하며, 신자생활을 쇠신하고 자선을 행하며, 자유와 평등의 삶을 추구하는 일들을 행하는 해로 삼습니다. 2018년인 내년엔 우리 한국평협은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교령을 반포하고 3년이 지난 1968년 7월 23일, 평신도 대표들이 대전에 모여 ‘전국평협’ 창립을 선언하면서 ‘한국평협’이 출범합니다. 그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는 전국평협을 인준해 주시고 (10월 14일) 더 적극적으로 ‘평신도의 날’을 제정해 주시므로써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격려를 해주십니다.

한국평협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희년을 희

년답게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각 교구 평협과 단체 대표들이 고루 참여하는 ‘희년준비기획위원회’(약칭, 기획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기획위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대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주년(희년)준비기획위원회의 구상들

먼저 금년(7수년)에는 한국 평신도의 역사 전반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평협 50주년뿐 아니라 초창기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성직자 영입 운동, 박해 시대, 일제 강점기, 해방정국의 평신도 활동, 6·25전쟁과 평신도들의 신앙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평가와 반성을 근간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한국평협 100주년에 하느님과 교회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로가 무엇인지를 도출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연구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느님 안에서 희년의 은총을 누리려면, ‘교회로부터 멀리 있는 형제들’과 함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쉬고 있는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협 단독으로 연구가 벅하다면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사목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협 100년을 여는 희년에는 현대를 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 확립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진행해 온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을 바탕으로 기념사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 각자의 개인적 쇠신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첫 번째 소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 상호 간에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간의 사랑이 실현되는 첫 번째 공동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당과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 일치된 공동체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가정과 본당, 단체 안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참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행복해할 것입니다.

성체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은 다른 그리스도 형제들과의 일치 운동, 이웃 종교인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 버는 것은 익숙하지만 나눌 줄을 모르는 부자, 가난으로 고통스러운 사람, 병든 형제 등 우리를 기다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아시아의 교회와 형제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수의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평신도들이 나서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희년을 기해서 신앙 선조 평신도들의 순교 정신을 되살립시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김광현 안토니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하느님 보시기에 착한 신앙인으로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한국평협 정기총회가 열린 지난 2월 1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김광현 안토니오 회장(58세)을 만났다. 박원규 전 대전평협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상경해 전국의 평협 임원진과 친교를 나누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미소 띤 얼굴로 성실히 사진촬영에 응하고 답해주신 김 회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광현 대전평협 회장은 봉사가 몸에 밴 신앙인이다. 평협 활성화를 위해 교구 내 14개 지구본당을 차례로 방문할 생각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김광현 회장.

❖ 대전평협 회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지난해 연말에 제24대 대전교구 평단협(이하 평협) 회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평협 회장은 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평신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는 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전평협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전평협은 1966년 결성되어 교구 내 14개 지구(139개 본당) 사목회장단과 19명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연합회와 레지아를 비롯한 교구 내 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단이 협력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홍식 라자로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 방침에 따라 회장인 저를 비롯해 김기태(도미니코) 수석부회장, 최경찬(안젤라) 여성부회장 등 19명의 상임위원들이 복음 안에서 효과적이고 함께 참여하는 사도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전평협 활성화를 위해 ‘평협 알리기’ 운동을 열성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평협 회장인 제가 교구 내 14개 지구본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생각입니다. 각 지구 회장단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평협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다보면 평협이 더 활성화되고 평신도들의 참여도 더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루카복음 읽고 필사하기 운동 전개

❖ 대전평협의 올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지요?

“대전평협은 교구장 주교님이 발표한 2017년 사목지표인 ‘시노드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사는데’에 적극 동참하면서 몇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사목지표인 교구 시노드의 성공적인 구현(평신도의 시노드 적극 참여)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교구 시노드를 통해 평신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쇠신되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가족과 함께 루카복음을 읽고 필사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평협에서 추진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전교구 평협은 지난해 12월 3일 세종시 전의면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제47차 정기총회에서 한국평협 권길중 회장을 초청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참석자들은 당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다’, ‘우리는 각자의 소명을 직시하여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아간다’, ‘우리는 교구 시노드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의 발전에 협력한다’는 네 가지 주제를 발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김광현 회장은 지난 1월 21일 열린 ‘2017년 지구회장 및 평단협 상임위원회의’와 지난 2월 25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109개 본당 사목회장단과 22개 단체에서 3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본당 회장단 인준단체 연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올해 대전교구 평신도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답게 삽시다’ 운동도 내실 있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김중수 총대리 주교와 함께한 대전평협 지구회장 및 평단협 상임위원들, 김민희 대전평협 지도신부, 김광현 회장.

❖ ‘답게 삽시다’ 운동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실천하실 계획이신지요?

“지난해 말에 교구 차원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뒤 점차적으로 각 본당으로 선포식을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본당까지 확대되면 ‘나답게’, ‘하느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교구민들의 바람과 의지가 평신도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한편으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더불어 살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평협은 생활 속에서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실천운동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한생명운동

❖ 대전평협이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생명운동’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전국 교구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한생명운동은 우리 교구의 자랑이며 사명입니다. 대전교구 한생명운동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을 본받아 혈액 부족과 장기 결핍으로 고통을 겪는 이웃에게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문화에 젖어드는 평신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간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거듭 알려 생명의 문화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대전평협 정기총회에서 강의하는 김종수 총대리 주교. 대전평협은 올해 사목지표인 '교구 시노드의 성공적인 구현(평신도의 시노드 적극 참여)'과 '답게 삼시다' 실천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비인간화로 얼룩져가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몸(현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을 나눔으로써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도직을 수행하고, 낙태반대 등 생명존중 운동으로 평신도의 정체성을 찾는 운동입니다. 올해부터는 한생명운동을 교구 내 본당을 중심으로 펼치되, 교구 내 중·고등학교 축제 등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운동으로 한층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광현 회장의 말처럼 대전평협의 한생명운동은 대전교구의 자랑이다. 대전평협은 지난해 7월에는 대전·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충남 지역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 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함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부응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도 대전평협에서 실시하는 생명 캠페인에 참여,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생명운동이 지속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생명존중 운동으로 뿌리내린 것이다.

❖ 김 회장께서는 대전평협 감사로도 봉사하신 것으로 압니다. 평협 활동에 뛰어든 것은 언제부터인지요?

“평협 활동을 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대전

평협 21대 기획운영분과장을 맡아 일했고, 2014년부터는 감사를 맡았습니다. 본당 사목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경험이 있어서 평협 일도 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교구 평협업무를 맡아보니 생각처럼 그리 수월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웃음)”



지난 2월 평단협 상임위원 워크숍.

장모님 장례미사 뒤 제 발로 입교

❖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는지요?

“교구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참석 인원이 생각보다 못 미칠까봐 마음속으로 애도 많이 태웠지요. 특히 대전교구 평신도가 주관하고 실행하는 큰 행사인 카리타스 한생명 대축제를 대전·충남지역을 순회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의 은총 없이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꼭 채워주신다는 희망과 신념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을 결혼 후에 갖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을 중심으로 처가집 식구들이 모두 천주

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처가 식구들이 저한테 천주교 신앙을 가져보지 않겠느냐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처가 식구들이 천주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네가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그 후에 장모님께서 하느님 품으로 가시는 장례미사를 봉헌하면서 제가 천주교 신앙을 갖기로 마음먹고 제 발로 교리반에 입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리를 마치고 영세한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제가 제 발로 교리반에 입교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를 비롯한 처가집 식구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웃음)”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봉사해

❖ 앞서 본당 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봉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영세한 후 전례부 활동(독서)을 시작으로 대건회장, 사회복지분과장, 전례분과장, 사목회 총무를 거쳐 본당 사목회장(대전 탄방동, 2013-2016)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여러 직책을 맡아 기쁘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 헬레나의 적극적인 도움과 기도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당 사목회장으로 소임을 하던 2014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에는 방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전하신 미사에 1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영광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본당에서 위령분과에 가입을 해서 하느님 품으로 가시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작지만 뜻깊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몸에 밴 김광현 회장. 지난해 12월 대전평협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참석한 평협 임원들과 본당 사



지난해 12월 대전 평협 회장 선출 뒤 임원들과 함께.

목회장들 앞에서 “미약한 힘이지만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 방침이 잘 이행되도록 대전교구 평신도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잡고 걸어가겠다.”며 도움을 청한 김 회장은 늘 기쁘게 직분을 받아들이고 봉사 일을 통해 신앙을 쇄신해 가는 신자다. 김 회장의 신앙의 지표는 무엇일까?

❖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시는지요?

“김종수 총대리 주교님이 지난해 대전평협 정기총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사랑이 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 가장 은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봉사했지만 그래도 제 가슴속에 늘 남아 있는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평신도가 된다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ME)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이하 '한국ME')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40년에 대한 성찰과 향후 부부 간의 내적 성장과 한국 ME의 외적 성장을 위해 오는 5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있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5개 교구가 공연을 하는데, "하느님께 받은 ME 부부로서의 은사(기쁨, 환희 등)"를 다채롭게 펼쳐 보일 계획입니다. 행사에 앞서 작년에 한국ME 대표 부부로 선정된 김흥기 프란치스코 형제와 최계진 마리아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국ME 대표 부부, 김웅태 신부와 함께한 김흥기·최계진

❖ ME(Marriage Encounter) 역사가 궁금합니다.

ME를 설명하려면 1950년대 말 스페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문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던 가브리엘 칼보 신부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됩니다. 신부님은 가정의 문제가 불안정한 부부 관계로부터 생긴다고 확신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청소년들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한국ME는 1977년 도입되어 올해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어떤 부부들이 ME에 참여하나요?

ME는 더 좋은 부부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잉꼬부부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혼인생활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ME에 참여하면, 부부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또는 다른 종교인도 환영합니다. ME에 참여한 비종교인의 경우 ME 프로그램을 받은 후 80% 이상 세례를 받습니다.

ME주말은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해 일요일 오후 6시에 끝나고, 2박 3일 동안 숙식이 제공됩니다. ME주말을 먼저 경험한 신부님과 부부들이 한 팀이 돼 ME주말 참가 부부(성직자, 수도자)들을 발표를 통해 도와줍니다. ME주말 중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본 다음, 자신의 혼인 생활을 되돌아 보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 중 하느님과 우리 부부와의 관계, 사회에서의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발표 팀들이 발표를 통해 참가자들을 돕습니다.



❖ 한국ME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ME는 12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ME주말 프로그램 ▲봉사자 양성을 위한 디퍼주말 ▲젊은이들의 올바른 미래 선택을 돕는 선택주말 ▲예비부부들을 위한 약혼자주말 ▲부부의 쇄신을 위한 쇄신주말 ▲부부의 영성을 위한 MR(Marriage Return)부부피정 ▲본당 발전과 화합을 위한 사도직 프로그램 보급 및 봉사 ▲부부와 자녀를 위한 사도직 프로그램 보급 및 봉사 ▲지속적인 봉사자 양성을 위한 팀부부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와 보급 ▲위기부부를 위한 르트루바이 주말(2015년 독립) ▲해외거주 한인들을 위한 주말봉사이입니다.

❖ 한국ME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우리 사회는 부부 간의 이혼율 상승과 가정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결혼 가정과 비행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ME는 지난 40년 동안 개인적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부부들을 환영했습니다.

ME는 부부의 상호 이해와 사랑을 위해 의사소통을 돕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ME 주말에서 익힌 새로운 방법으로 부부들은 혼인생활을 기쁘고 풍요롭게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ME주말 후에도 ME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특히 ME주말 부부 프로그램을 통해 '참 부모와 참 부부'가 되기 위한 확산 운동을 펼쳤고, 좋은 결실을 이뤄왔습니다.

❖ 대표부부가 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했다고 하던데요.

ME의 프로그램 중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한 엑소더스 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ME주말을 탈출기에 비유한 것인데, 가령 1부는 '광야를 헤매다', 2부 '계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산에 오르다', 3부 '약속의 땅으로 가다'로 나뉩니다. ME주말 동안 하느님을 체험하고, 서로 존중하는 부부의 마음이 충만해 바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줄 아는데, 사실 체험하고 나와 부부는 다시 광야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ME

특집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맞이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서상덕 편집위원



한국ME 2017년 상반기 정기총회(2.28~3.1)

주말을 받아도 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국ME가 올해 40주년도 맞이해 17년 만에 엑소더스 프로그램을 전국 ME부부에 경험하도록 진행했습니다. 특히 ME주말을 경험한 부부 중 탈출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로 돌아간 부부, 다시 말해 냉담한 부부를 끌어내려고 시작했습니다. ME주말을 다시 경험하게 해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의 갈등으로 인해 침체된 본당, 교구도 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쩌면 지난 40년간 한국ME가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해 ME주말을 보낸 부부가 잘 사는 모습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의 4가지 원칙인 ▲대화 ▲성생활(침대 안팎에서의 친밀감) ▲기도생활 ▲공동체 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부부간에 내적으로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ME 대표부부로서는 ME주말을 경험하는 부부 규모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 한국ME 40주년에 특별히 계획한 행사가 있으신가요?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한국ME는 40주년을 맞이해 과거 발전된 면모를 돌아보고, 올바른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새로운 계약을 통해 한국ME가 한 걸음 더 도약하려고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ME는 두 가지 목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선, 참여한 부부에게 서로 사랑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ME공동체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재혼한 커플도 ME주말로 초대하고, 어려운 교구와 은총 주말 등 해외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ME는 40주년 상징(가칭 '부부 사랑나무')을 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팔 벌린 기둥(십자가를 의미)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성기공'을 통한 부부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풍성한 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듯이 부부사랑을 통해 많은 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ME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의 기둥은 세상의 부부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색 색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믿음, 평화 그리고 무한한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매리지 엔카운터의 기본이념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시각적으로 이미지 전달을 극대화했습니다. 주색은 매리지 엔카운터의 색상을 사용해 부부의 뜨겁고 강인한 사랑을 나타낸 빨강과 노랑으로 표현했습니다(www.mekorea.or.kr). 



"평신도 사도직 전국협의회 창립"을 보도한 1968년 당시 「가톨릭신문」 (현 가톨릭신문)

1968년 7월 23일. 대전 대흥동주교좌성당.

당시 전국 12개 교구 가운데 원주교구를 제외한 11개 교구 평신도 대표와 8개 단체 대표 등 27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전신인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 교회 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 장면이다.

한국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와 함께해 온 지 반세기. 이 땅의 평신도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역사는 기억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분에게 다가가는 길이다.

한국 교회 역사는 평신도의 손을 빌린 하느님의 역사하심이다. 평신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오신 주님의 여정을 열두 마당으로 나눠 연재한다.

「하느님 얼굴을 보는 길」

누구도
하느님 얼굴을 본 사람 없습니다

살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느님, 당신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얼굴 말갈게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십시오
화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화해의 찰나
자비의 주님 얼굴 맞대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자비의 얼굴 만나는 길
참으로 험고도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걸어가야 할 길임을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얼굴임을 믿기에...

이제 다시 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 얼굴 만나려
나서고자 합니다

**1 첫째 마당 - 평신도들의 손으로 마련한
한국 교회 초석**

정조 7년(1783년). 영조의 부마 황인점이 동지사 겸 사은사로 청나라 수도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에 간다는 소식이 세간에 전해졌다. 그의 연경행에는 사행의 기록을 담당하는 서장관(書狀官)으로 이동욱(李東郁)이 동행기로 결정됐다.

당시 개인이 국경을 넘거나 북경에 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 이뤄지는 동지사 파견은 국가 간 무역의 통로뿐 아니라 문화의 이동 경로로 중요성을 띠었다.

정약용의 누이(妹)를 아내로 맞은 이가 이동욱의 아들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이었다. 그런 그에게 사촌이자 사돈 관계인 이벽이 찾아왔다.

“이번에 자네가 북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참으로 하늘이 우리들에게 성교(聖敎)의 참된 뜻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천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좋은 기회일세. 이 교리만이 성현의 도(道)이며, 만물(萬物)을 만들어낸 주인인, 오직 하나뿐이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천주에게 봉사하는 참된 교(敎)이므로 구라파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높이 받든다네. (중략) 이번 자네가 북경으로 가게 된 것은 참으로 천주께서 우리 이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섭리네. 북경에 들어가거든 곧 천주당에 가서 구라파의 교사(敎師)를 만나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물어서, 교의(敎義)의 깊고 참된 뜻을 밝히며, 천주교리의 실천 방법을 자세히 살피고, 또 필요하고 중요한 교리에 관한 책을 모두 가지고 돌아오게.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가 달린 큰 문제가 자네 손에 매여 있으니,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몸가짐을 특히 주의하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천주교 교리에 밝지 못했던 이승훈은 이벽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한다. 그때부터 이승훈은 교리서적을 얻어 읽고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결심한다.

1783년 음력 10월 14일. 이승훈은 아버지인 서장관 이동욱을 따라 서울을 떠나 북경으로 향한다. 12월 3일 심양(瀋陽: 지금의 봉천)을 거쳐, 12월 21일 드디어 북경에 도착한다. 그 후 그에게 주어진 40여 일의 시간은 한국 교회는 물론 보편교회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분수령이 된다.

친구 이벽의 부탁을 떠올린 이승훈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당시 프랑스에서 온 예수회 신부들

이 말아 사목하던 ‘북당’을 자주 찾아갔다. 그는 외국인 신부들과 필담(筆談)을 통해 교리를 배우고 세례 받을 준비를 해나갔다. 난생 처음 만나는 이국의 사람들이지만, 하느님의 진리를 향한 불타오르는 열정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냈다. 한문을 빌려 오가는 필담이었지만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진리에 다가설 때마다 북받치는 감동이 함께한 이들을 휘감았다.

동지사 사행이 다시 본국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인 1784년 음력 정월 그믐(양력 2월 하순경), 이승훈은 북경의 북당에서 드 그라몽(Louis de Grammont: 예수회)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조선 교회의 주춧돌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당시 북경에 있던 예수회 관구장 드 방파봉(de Ventavon: 汪達洪) 신부는 이승훈의 세례 소식을 프랑스에 있는 친한 벗에게(1784년 11월 25일자) 이렇게 알렸다.

“아직 어떠한 성직자가 한 사람도 받을 들여놓지 못한 한 왕국에서 복음의 빛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천주께서 쓰시려고(使用) 하신 바 한 사람이 개종(改宗)하게 된 이야기를 그대는 위안과 즐거움으로써 들으리라고 믿는다. 그 왕국은 중국 동쪽에 있는 반도의 나라 조선이다. (중략) 작년 겨울에 들어온 조선의 사절과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 성당을 구경하러 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종교 서적을 주었다. 그들 중 나이가 27세로 귀족의 아들이며 학식이 많은 한 청년은, 즐겨 이 종교 서적을 읽고 진리를 믿었다. 그는 성총(聖寵)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결과, 깊은 연구를 거듭하여 우리 종교를 믿고 그것에 의지(依持)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세례를 주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다. (중략) 마침내 돌아가기 전에 그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드 그라몽 신부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베드로라는 본명(本名)을 주었다.”

이승훈은 1784년(정조 8년) 음력 3월에 수십 종의 교리서를 비롯해 십자고상(十字苦像), 성화(聖畵), 목주 등 성물은 물론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을 숨겨 서울로 돌아왔다.

이승훈은 염초교(焰炒僑: 지금 서울역 북쪽) 부근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실천에 옮기는 한편, 중국에서 가져온 교리서를 이벽에게 넘겨주었다.

친구를 통해 소중한 신앙의 선물을 받은 이벽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교리 연구를 마친 이벽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이승훈과 정약중, 정약용 형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도리이고 참된 길이요, 위대하신 천주께서는 우리나라의 무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시오. 이것은 천주의 명령이오, 우리는 천주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을 수가 없소. 천주교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오.”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으로 끓어오른 이벽(李穰: 1754~1786)은 1784년 음력 9월 서울 수표교 부근에 있던 자신의 집 대청에서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로써 한국 교회는 신기원을 이루게 된다, 평신도들의 힘으로. 당시 이벽의 나이 30세, 이승훈은 28세의 청년이었다.

이벽은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섰다. 그는 중인 계급의 친구들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들 중 최창현, 최인길, 김종교 등을 비롯해 많은 양반들이 하느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2 둘째 마당 - 평신도, 한국 교회를 다시 열다

1800년 정조 임금이 병으로 승하하자, 이듬해인 1801년 1월 10일 사학금지령이 선포되면서 신유박

특집

해가 일어났다.

이 일로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겨났고, 최필공, 이준창, 이가환, 정약용, 이승훈, 권철신, 정약중, 최창현, 강완숙 등 초기교회 신앙선조들 대부분이 순교하거나 유배됐다.

1801년 4월 19일, 한국 최초의 외국인 신부로 1795년 조선에 들어와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해 가던 주문모 신부마저 순교하자 한국 교회는 이후 34년간 목자 없는 교회로 남아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평신도들은 사제 영입 운동과 선교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신유박해로 아버지 정약종과 형 정철상(카롤로)을 잃고 백부와 숙부인 정약전, 약용마저 유배에 처해지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음에도 일곱 살 정하상(바오로: 1795~1839)의 마음에서는 도리어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이 강해졌다.

가산이 몰수당해 갈 곳이 없어 남은 가족들 모두 다시 고향인 경기도 마재로 내려갔으나 문중 사람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갖은 냉대와 멸시뿐이었다. 청년으로 자란 정하상은 친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813년 홀로 서울로 올라온다. 그는 조중이(바르바라) 집에서 머물면서 교리를 배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 그 후 더욱 깊이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 함경도 무산에 귀양 가 있던 한학자 조동섬(유스티노)을 찾아가 천주교 교리와 한문을 배우고 다시 상경한다.

어엿한 재목으로 성장한 정하상은 시름에 빠져 있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선다. 성직자 영입을 위해 신분마저 숨기고 역관의 하인으로 들어간다. 1816년 동지사 일행에 섞여 북경에 간 그는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주교에게 성직자를 요청한다. 하지만 당장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한다.

이후 정하상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조신철, 유진길과 함께 아홉 차례나 북경을 오가면서 북경에 있는 주교와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끊임없이 성직자 영입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1827년 조선 교회가 파리 외방 전교회에 위임되고 동시에 조선교구가 설정되기에 이른다. 교회 재건을 위한 나선 지 10여 년 만에 유방제, 나 모방, 정 샤스탕 신부와 범 앵베르 주교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앵베르 주교는 정하상이 사제가 되기에 적당한 인재라고 여겨 이신규와 함께 신학생으로 뽑아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쳤다. 조선교회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그러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사이 세력다툼으로 또다시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는 주교를 피신시키는 등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다.

하지만 1839년 7월 어머니 유 체칠리아, 여동생 정정혜(엘리사벳)와 함께 체포되고 만다. 그는 자신이 쓴 「상재상서(上宰相書)」를 대신에게 올려 천주교의 교리를 당당하게 변호했다. 박해의 부당성을 뛰어난 문장으로 논박했기에 조선 조정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하상은 서양에서 온 사제들의 은신처를 대고 배교하라고 강요당했으나 거절했다. 톱질형을 받아 살이 떨어져나가고 골수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고문이 이어졌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포청에서 여섯 차례의 신문과 형벌을 받고 의금부로 넘겨져 다시 세 차례에 걸친 형문을 당한 그는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1839년 9월 22일, 정하상은 자신의 아버지 정약중이 순교한 서소문밖 형장에서 같은 죄목으로 참수되어 순교의 영광을 안았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역사의 순간마다 복음화의 문을 열어 제친 평신도들로 인해 빛의 자녀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한국평협 창립 50주년 맞이 -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류덕희 회장】 평신도가 제자리를 찾아야

대담·정리
김문태 편집위원

2018년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이 다. 이를 준비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이번 호부터 생존하고 있는 역대 한국평협 회장을 만나 지난 50년을 회상하는 한편,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기로 한다. 한파가 몰아친 지난 2월 9일 낙성대 전철역 바로 옆에 자리한 경동제약 9층 회의실에서 류덕희 모세 회장을 만났다. 그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제11대와 제12대 한국평협 회장을 역임하였다. 여든이라는 나이에 패기와 의욕이 넘쳤다.



류덕희 회장.

❖ 세례를 언제 어떤 계기로 받게 되셨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개신교 교회에 몇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다닌 건 아니고요. 그러다 1956년에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들어갔는데, 철학 교수님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천옥환 교수님의 철학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여러 종교 중에 천주교가 가장 낫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천주교를 좋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천옥환 교수는 1980년 군부에 의해 해직된 교수들 중의 한 명이다. 류회장은 그러한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에 매료되었던 듯하다. 실제로 류 회장은 1960년 4.19혁명 당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으로 4.19의거 학생대책위원회 성균관대학교 대표이자 4.19민주혁명 순국학생위령탑 건립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4.19육영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

도 그러한 활동의 연장이다.)

저는 1976년부터 경동제약을 이끌어왔는데, 1979년에 용산본당에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피정이나 성령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신앙을 키워나갔지요. 그러다가 본당에서 구역장을 하고, 1981년부터 전례분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목회장의 에스맨 스타일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평신도가 할 말을 못하면 교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1985년이었습니다. 11월에 집안의 시체에 다녀왔는데, 주일에 김택암 베드로 주임신부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저 보고 “총회장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목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목회장을 하나면서요. 하지만 신부님께서 사목위원들과 함께 세 번이나 저를 찾아와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때부터 1990년까지 총회장을 하고, 1993년부터



2017 봄 평신도 류덕희 1999년 대희년 맞이 평신도 대회.
1999년 도·농 한마당 잔치.

1998년까지 다시 연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총회장을 1년씩 임명하셨는데, 10년 동안 총 10번 사목회장을 한 셈이지요.

사실 주임신부님이 제게 사목회장을 시키신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용산본당이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성당이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6·25전쟁이 끝나고 성당을 짓다보니 그냥 공터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사유지고, 다른 한쪽은 국유지고, 또 다른 한쪽은 수녀원 땅이었어요. 땅의 소유 문제뿐만 아니라 녹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해야 했지요. 제가 사목회장을 하면서 1987년에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성당을 지은 겁니다. (용산본당은 1988년에 새 성당 기공 미사를 드리고, 1989년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새 성당 봉헌식을 하였다.) 김용태 요셉 신부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새 성전을 짓고 빛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았으니까요. 적자를 엄청 낸 걸로 알았던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 평협 회장에 언제 어떠한 계기로 취임하셨는지, 그리고 임기 중에 어떠한 지향과 주안점을 가지고 활동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시에는 본당 총회장단 회의가 교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구에 드나들게 됐습니다. 용산본당의 문제로 주교님이나 신부님들과 여러 차례 상의하였지요. 그때 책임감을 갖고 일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당시 박정훈 평협 회장님이 제게 평협 사무총장직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평협 사무총장에 이어 부회장을 하다가 1996년 2월에 11대 평협 회장으로 선출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2월까지 한 차례 연임했습니다. 본당에서 사목회장도 하면서요. 그러니까 1985년 본당 사목회장부터 하면 2000년까지 15년간 봉사한 것이지요.

제가 평협 회장이 되고 바로 IMF가 터졌어요. 일이 몰릴 때 한꺼번에 몰린다고 그때 경제를 살리는 일이 제게 많이 맡겨졌습니다. (실제로 류 회장은 1997에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공동대표, 1998에 실업극복국민운동 운영위원과 실직가정돕기 범국민운동 공동대표를 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우선 도시와 농촌을 잇는 일을 시작했지요. (그 일환으로 류 회장은 1997년에 도농협력 전국장터를, 1998년에 도농공동체 나눔잔치를, 1999년에 대희년맞이 도농 한마당잔치를 열었다.) 각 본당에서 농산물 구매 쿠폰을 사서 서초구청 마당에 집결한 농산물을 직거래했던 것이지요. 그와 더불어 아나바다 운동과 같은 빈민돕기 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1998년에는 외채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선언식에도 참가했습니다. 저 역시 금모으기 운동 때 우리 집사람의 목걸이 하나만 남기고 다 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급했던 일은 북한을 돕는 문제였습니다. (류 회장은 1997년에 최창무 주교의 인솔 하에 북경에서 남북가톨릭신자 대표 회동을 하였고, 1998년에는 북한을 사목 방문하였다.) 그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북한에 곡식을 보내기도 하면서 북한 동포와 신자들을 도왔지요. 그러한 일들이 성과를 보일 때 참 보람을 느끼



1998년 북한 사목방문.

곤 했습니다.

저는 평협 회장이 되고 나서 평신도가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평신도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맹목적이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미신하고 똑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과 차별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 대표들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제 이전에 박정훈 회장 때 '내 탓이오' 운동을 했고, 이관진 회장 때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했어요. 제가 평협 회장이 되고 나서는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우선 '평신도 선언'부터 만들고, 2000년 대희년을 대비하였지요. 대희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삼 년에 걸쳐 매년 성자·성령·성부의 해를 선포했어요. 그에 따라 '새 날 새 삶' 운동을 했지요.

저는 주교회의 대희년 준비위원회에 가서 주제 발표를 하면서 사제와 수도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평신도도 바뀌어야 하지만요. (당시에 발간된 소책자 '평신도 선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며 꺼내보였다.) 거기에 맞춰서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도 하자. 자기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자.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그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자. 평신도들이 성자·성령·성부 세 단계로 나눠서 살자며 '평신도 선언'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1999년 5월에 대희년맞이 묵주기도 1억 단 바치기 운동을 시작했고, 10월에

대희년맞이 평신도 대회를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주제로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에서 했던 겁니다.

❖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평협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평신도가 지금 말을 못해요.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할 이야기는 해야지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답게 평신도의 위상을 세워야 합니다. 평신도가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평신도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구와 평협과 각 본당이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본당의 사목협의회가 평협과 긴밀한 연관을 가질 때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평신도의 의견과 요구가 평협과 긴밀히 소통되고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평신도의 위상도 올라갈 겁니다. 사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제나 수도자들의 교회가 아니니까요. 본당에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교구에 와서 주교님과 신부님의 처분을 요구하면서 하소연할 때 참 속상했습니다. 본당 일은 본당에서 평신도들의 손으로 해결해야지요.

평신도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사제 중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평신도들이 성직자와 수도자를 잘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종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성직자가 유아독존적 사목방향을 펼친다거나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사제는 사제로서의 직분을 지켜야 합니다. 사제는 사제답게,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현실을 극복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신도 선언'에서도 성직자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으로써 참된 목자로 거듭나 주기를, 또한 수도자는 교회의 영적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화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교가 불변하여 오늘날 쇠퇴해 가는 것이 타산지석이 됩니다.

기업이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그렇습니다. 꾸준한 자기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려면 새롭게 탈바꿈해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적습니다. 평신도도 그렇지만, 성직자가 변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직자가 잘해야 평신도도 잘하지요. 노력하면 길이 있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평협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나눔

평신도 연구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관점으로 본 가정폭력에 대한 평신도의 실천 방안

이화우 카리타스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역대 회장



초대, 유종일 라우렌시오
1968 ~ 1972



2대, 이창복 놀베르토
1972 ~ 1974



3대, 김기철 요셉
1974 ~ 1980



4대, 최상선 마르티노
1981 ~ 1982



5대, 안인재 요한
1982 ~ 1986



6대, 한용희 알브르시오
1986 ~ 1988



7-8대, 박정훈 요한
1988 ~ 1992



9-10대, 이관진 베드로
1992 ~ 1996



11-12대, 유덕희 모세
1996 ~ 2000



13-14대, 여규태 요셉
2000 ~ 2003



15대, 손병두 요한보스코
2004 ~ 2005



16-17대, 한윤순 토마스
2006 ~ 2009



18-19대, 최윤준 피비아노
2010 ~ 2013



레오 13세 교황으로부터 최초로 발표된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는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 또한 존중받으며 보호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사태』 이후 발표된 사회회칙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각 회칙의 주제는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태』, 『40주년』 회칙에서는 기업 경영과 노동의 주제 안에서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한 가정을 지탱하는, 즉 생계는 물론 교육과 양육, 문화생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가족 임금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화 시대에 경제적 안정이 가정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며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에서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초 공동체이며 사회의 기초 공동체를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으며(창세기 2,7)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창세기 2,18)춤으로써 인간은 하나가 아닌 둘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다.

남·녀 혼인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가정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달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정은 개인과 일반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가정의 불안은 개인과 일반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사목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사목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정부 역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을 돌보고 지원하는 데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은 소홀히 취급되어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1998년 11월 18일 범죄자 환경조정 및 성행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가정 육성의 입법취지로 가정폭력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초기상담 2107건

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상당은 26.7%(562건)을 차지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79.6%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였다. 그 뒤를 친부모(10.7%) 형제·자매(3.3) 자녀(1.9%) 시부모(1.1%) 의양부모(1.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멸시·욕설·협박·잠 못 자게 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이 81.9%(460건)나 됐으며 손발로 구타·목 조름·흉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67.8%(381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29.4%(165건)에 이르렀다. 이 같은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 피해(326건)를 호소했다. 상해·질병 등 신체적 피해도 78건이나 됐다. 이처럼 가정 폭력은 사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 및 일부 시민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변화를 통해 건전한 가정 육성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교리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안에서 유기체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왜냐하면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인간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웃에서 가정폭력을 인지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선적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반드시 112나 가정 폭력 핫라인 1366에 전화 신고만이라도 해주어도 이웃사랑 자기사랑 실천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멍둑과 피흘림에 우리 눈을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공의회 강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1)

이창훈 알폰소 서울평협 기획홍보위원장, 가톨릭평화신문 기자

이 글은 '가톨릭평화신문'과 월간 '레지오 마리아'에 연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사도직 교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네 번에 나누어 실는다.

I.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새로움

21번째 세계 공의회(또는 보편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이전 공의회들과 다르다. 첫째, 공의회 소집 동기가 다르다. 이전 공의회들은 공의회를 소집해야 할 상당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 이단 문제, 교회 분열, 세속 권력의 간섭 배제, 교회 생활의 폐해 근절과 규율 확립 등등.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의회 소집의 특별한 동기가 별로 없었다.

둘째, 공의회 결실인 문헌들의 성격이 다르다. 이전 공의회들은 교리적 측면에서 정통과 이단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이단에 대해서는 단죄했다. 또 교회 규율과 관련하여 법적 규율이 주를 이뤘다. 이에 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6개 문헌들은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전 문헌들에서 볼 수 있는 제재나 단죄, 처벌 같은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다. 교리 상 오류를 단죄하고 교회 생활의 폐해를 척결하기보다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대해 하느님 말씀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신학적 종교적 답변을 제공하려 했다.

이런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새로운 공의회다. 이 새로움은 공의회를 소집한 요한 23세가 공의회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라는 말에서 잘 나타난다. '현대화' 또는 '쇄신과 적응'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는 아조르나멘토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여 사회나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맞춰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 23세는 아조르나멘토를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방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어라'는 표현으로 풀이했다. 요한 23세의 눈에 교회는 정적이었고 고착화돼 있었다. 바깥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교회는 이제 오래된 공기를 갈아야 했다. 시대의 징표들을 식별하여(마태 16,3 참조) 쇠신을 이뤄야 할 때가, 아조르나멘토의 때가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었다.

1) 신앙 진리에 대한 이해의 새로움

이런 정신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선포하는 신앙 진리를 새롭게 이해했다. 진리 자체는 불변하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이해했다. 성경에 맞들이기, 전례의 토착화와 능동적 참여,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에 대한 이해 등을 새롭게 했다. 비가톨릭교회와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 현대 무신론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도 새롭게 했다.

2) 교회에 대한 이해의 새로움

공의회는 교회를 새롭게 이해했다. 이전까지 교황을 최고 정점으로 그 아래 주교들과 또 그 아래에 신부들과 부제들이 포진하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적 교회관이 주를 이루었다. 공의회는 이런 위계적 교회관보다 교회를 신비체로 보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하느님 자녀로서 똑같은 품위를 누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친교의 공동체로 이해했다.

3) 세상에 대한 이해의 새로움

공의회는 나아가 세상을 새롭게 이해했다. 이제 세상은 이전처럼 교회가 담을 쌓고 멀리해야 할 부정적 대상이 아니었다. 세상은 나름대로 질서를 갖고 있지만 그 질서는 복음 정신으로 개선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교회는 비록 현세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지만 현세 질서를 하느님 뜻에 맞도록 개선하는 일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이 현세질서를 개선하는 일은 특히 평신도에게 맡겨져 있다. 평신도는 나름대로 교회 성장을 위해 봉사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속에 살면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공의회는 이렇게 평신도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했다.

※ 신학적 원리

여기에는 근간이 되는 신학적 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강생의 원리였다. 하느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려 몸소 사람이 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과정과 결실

1959년 1월 25일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마치는 예식을 집전하고 난 교황 요한 23세는 대성전 옆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추기경들에게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이 공의회가 '일치 공의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 갈라져 나간 그리스도교 공동체 대표들도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준비 과정을 거쳐 1962년 10월 11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했다. 전 세계 2908명 교부들 가운데 2540명이 참석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유럽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아프리카에서 379명, 아시아에서도 300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당시 서울대교구장 노기남 대주교를 비롯해 모두 9명 주교가 참가했다.

공의회가 1차 회기를 마친 후 1963년 6월 3일 요한 23세 교황은 82세 나이에 위암으로 선종한다. 요한 23세 후임으로 교황 직에 오른 밀라노 대교구장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 추기경, 곧 바오로 6세 교황은 1963년 9월 29일 공의회 2차 회기를 개했다. 교황은 개회 연설에서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이해, 교회 쇄신, 그리스도교 일치와 촉진, 현대 세계와의 대화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6개 문헌

	제목	성격	약칭
1	거룩한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전례헌장
2	인류의 빛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교회헌장
3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계시헌장
4	기쁨과 희망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사목헌장
5	놀라운 기술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	사회매체교령
6	동방 교회들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	동방교회교령
7	일치의 재건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교령
8	주님이신 그리스도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교교령
9	완전한 사랑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수도생활교령
10	온 교회의 열망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사제양성교령
11	사도직 활동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평신도교령
12	만민에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선교교령
13	사제품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생활교령
14	교육의 중대성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그리스도인 교육선언
15	우리 시대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 선언
16	인간 존엄성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종교자유 선언

이렇게 계속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5년 12월 7일까지 4차 회기에 걸쳐 모두 4개 헌장, 9개 교령, 3개 선언 등 모두 16개 문헌을 공포하고 12월 8일 교황 바오로 6세가 주례한 장엄미사로 폐막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폐막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다. 

북한생활 체험기4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시편 31,16)

박정일 주교 마산교구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북한 공산치하에서의 생활과 짧았던 덕원신학교 생활, 위험했던 피난길,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제주도의 피난 신학교 생활 등의 추억을 더듬으며, 그 긴 세월 저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섭리에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현재의 박정일 주교

나는 혼자서 하루 종일 예성강 강가를 따라 38도선 가까이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저녁때 쯤 되어 피난민들이 강을 건너고 있는 곳까지 도달하였다. 개성읍이 가까운 지점이었다. 38도선이 가까워서인지 멀리서 포성이 들려오기도 하여 무서웠다. 수심이 깊지 않아서 걸어서 건너기에 어렵지 않았지만 12월 중순이라 강물이 매우 차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는 피난민들을 따라 개성읍으로 들어가서 성당을 찾았다. 거기에도 으레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또 나는 혼자서 걷기 시작하였다. 남으로 남으로, 서울로 서울로... 그런데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중년 남자가 길가에서 피난민 청년들을 상대로 국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나는 쉽게 거기에 응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나의 생각이 매우 단순했

던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으니, 우선 젊은이로서 나라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중년 남자가 '다른 지원자를 데리고 오겠지.' 생각하면서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내가 국군을 지원하는 것이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는 생각으로 다시 혼자서 걷기를 계속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혹시 그 사람이 국군을 위장한 북한의 오열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난다. 만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아찔하다.

성신대학 신학생이 되어

그런 일이 있는 후, 하루는 많은 피난민들이 줄을 이어 걷고 있는 길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 나의 외숙모와 외사촌 동생을 만났다. 이 외딴 곳, 피난길에서 우연히 가족을 만나다니...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만끽하며 함께 걷게 되었다. 드디어 서울에 도달한 것이 12월 23일 저녁 무렵이었다. 내가 평양을 출발한 지 만 20일 만이었다.

서울에는 작은 외숙부가 살고 계셨다. 외숙부 댁에서 이틀을 지내고 성탄 날 아침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례하였다. 그때의 나의 기쁨, 느낌, 마음이 어떠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었는지 지금은 아득할 따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 70년 전 일인데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 위험 등의 기억이 교차하고 겹쳐서 분별이 안 되었던 탓일까...

미사 후에 성당 마당에서 북한 덕원신학교에서 철학과 학생이었던 베네딕토회 신학생 황춘홍 다미아노를 만났다(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나의 첫 물음은 신학교와 신학생들의 소식이었다. 많은 신학생들이 군에 입대하였거나 귀가하여 현재 해화동 신학교(현 가톨릭 대학교, 당시는 성신대학)에는 신학생 몇 사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알려주었다.

다음 날 나는 곧바로 물어물어 해화동 신학교를 찾아갔다. 그런데 반갑게도 거기에서 평양교구 신학생 두 사람을 만났다. 하나는 덕원신학교에 같이 있어서 잘 아는 정의채 바오로 몬시뇰(당시는 철학과 학생이었고 사제가 되어 서울 가톨릭 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학장을 지내고 지금은 은퇴하여 계신다.)과 김진하 부제였다. 피난길에서 같은 교구 신학생을 만난 기쁨과 어려운 피난길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느끼는 안도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김진하 부제가 곧바로 나를 당시 학장이셨던 정규만 마르코 신부님께 데리고 가서 "이북에서 피난 온 평양교구 신학생인데 동행해도 되는가." 문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로써 나는 비로소 성



▲ 제주를 떠나기 바로 전에 찍은 사진. 1952년 8월 14일 로마 우르바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신대학 신학생이 되었던 것이다. 매우 기뻐다.

대구에서 새해를 맞이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두 분 신학생과 나) 한강에 놓여 있는 임시 부교(당시에 한강 인도교와 철교는 모두 파괴되어 없었다.)를 건너 영등포역에서 마지막 피난 열차를 탔다. 기차는 이름만 기차이지 기차 형태도 아니었다. 기차 안팎과 위(꼭대기) 할 것 없이 사람과 짐 등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뿐인가. 기차는 가다가 서고 또 기다리고 등... 하룻밤을 지새우며 12월 28일 오후쯤 대구역에 도착하였다. 그래도 이 막차를 탈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구대교구 주교관 옆에 안넥사(Annexa=라틴어로 부속 건물이라는 뜻)라는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약 30명의 신학생들이 모여 있었다고 기억한다. 우리를 맞이한 신학생들은 우리가 북한에서 피난 온 학생들이라며 기쁘게 환영해 주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약 20일을 지냈는데, 나는 그 당시의 신학생 총급장이었던 이인하 신학생(대전교구 신부로서 지금은 고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의 부드럽고 친절하 태도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인하 신부님은 지금까지도 친절함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널리 회자되는 분이시다.

우리 신학생들은 대구에서 1951년 신년을 맞이하였다. 1일 아침 모든 신학생들이 당시 대구교구



▲ 제주 피난 신학교 때(1951.4.22).

장이셨던 최덕홍 주교님께 합동으로 세배를 드린 것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안벽사에서 우리는 특별한 일정 없이 지냈다. 그 날이 무위의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오랜만에 누리는 평안한 나날이면서 한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상념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추억이 나의 머리를 스쳐가는 시간들이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사리 입학하였던 덕원 신학교가 공산정권에 의해 폐쇄되어 강제로 귀가해야 했던 일, 평양에 도착하여 교구장이신 홍용호 주교님께서 공산정권에 의해 불시에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허탈감, 그리고 교구 신부님, 동료 신학생들과 헤어져서 산골 고향집에 돌아가 사제의 길이 아득히 보이지 않던 고향에서 지낸 무료한 나날들, 1950년 3월에 월남을 감행하다가 해주 38선 정치보위부에서 지낸 2개월간의 절망적인 유치장 생활, 그리고 대구에 도착할 때까지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고달팠던 20일간의 피난 길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곤 하였다.

또 다른 한편, 헤어진 부모 형제와 가족들의安危와 소식을 알 수도 없고 알아볼 길도 없는 것이 답답하고 걱정되어 마음이 아팠다. 또한 나 홀로 이 어려운 시기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월남에 성공한 사촌 여동생 테레사(후에 한국 순교복자회 수녀가 되었음)가 신학생들이 대구 주교관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알고 나를 찾아와서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때는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지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우리 신학생들은, 언젠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제주도로 이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 피난 신학교에서 로마로

1월 20일경이었다고 기억되는데 우리는 제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군용 버스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제주 가는 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서 4~5일 동안을 부산 중앙성당과 몇몇 교우 집에 분산되어 숙식을 해결하면서 기다려야 했다. 어렵게 미군 수송선 LST를 타고 부산항을 떠난 것이 며칠 후 저녁 무렵이었다. 그날 밤 많은 학생들이 배멀미로 고생을 했다. 나도 몹시 배멀미를 한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제주도 모슬포 앞바다에서 하선하였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 저녁 무렵에 서귀포읍에 도착하여 서귀포 본당에서 1박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도달한 곳이 우리의 목적지인 서흥리공소였다(당시 서귀포본당 공소, 현재는 한국순교복자 수도회가 운영하는 '면형의 집' 피정 센터가 있다).

이렇게 신학생들이 서흥리공소에 자리를 잡음으로 '제주 피난 신학교'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안도의 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때 우리 인원은 대신학생 약 10명, 소신학생이 30여 명 합하여 총 50명 정도였다고 기억한다. 신학교 장상으로는 정규만 마르코 학장 신부님과 한공렬 베드로와 오기순 알베르토 교수 신부님 그리고 조창희 베네딕토 경리 담당 신부님 네 분뿐이었다. 우리는 한데 모여서 살았을 뿐 신학생으로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서흥리 신학교에서 약 1개월 반을 지내고 급히 제주읍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 한라산에 많은 공비들이 있었고 가끔 부락을 습격하여 약탈과 사람을 납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3월 초에 우리가 있는 서흥리 마을이 습격을 당하여 신학생들이 크게 놀랐고 납치를 당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신학교는 더욱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제주읍에 있는 신성여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서흥리공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학교 강당과 교실 등에서 숙식하면서 지내다가 약 1개월 후인 5월 중순께 대신학생들은 부산시 영도에 있는 신선동본당에 자리를 옮기고 소신학생들은 경남 밀양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나는 중학

교를 졸업하고 별과(라틴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영도 신학교에 머물게 되었다.

부산 영도 신학교에서의 생활은 많이 안정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은 여전히 좀 불편하였지만(아침에 일어나면 세숫대야를 들고 산에서 흘러 내리는 도랑에 가서 세수와 양치를 해야 했다.) 일부 신학과 철학 강의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비로소 철학과 1학년 공부를 시작하였고 다음해인 1952년 8월 14일 로마 우르바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북한 생활 체험기'를 마치면서

1945년 8월 15일부터의 북한 공산치하에서의 생활과 짧았던 덕원신학교 생활, 위험했던 피난길,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제주도의 피난 신학교 생활 등의 추억을 더듬으며, 그 긴 세월 저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섭리에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저의 체험기를 읽어 주신 <평신도>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특별
기고

복자 다카야마 우콘 시복식에 다녀와서

강우일 주교 제주교구장



시복식에서 축사를 하는 강우일 주교.

시복 수속 70년 만의 경사

지난 2월 7일 일본 오사카성 홀(컨벤션 센터)에서는 다카야마 우콘(유스토 高山右近) 복자의 시복식이 교황대리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교황청 시성성 장관)의 주례로 열렸다. 일본 전국에서 1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장엄 미사와 함께 다채로운 시복 축제를 개최하였다. 한국 교회와 달리 교세가 약해 가톨릭 신자가 소수에 불과한 일본 교회로서는 오랜만에 기획한 큰 축제였다.

시복미사에는 필리핀 마닐라 교구의 타글레 추기경을 비롯하여 일본 주교단 전원과 한국 주교단 6명, 베트남, 캄보디아, 룩셈부르크에서 온 주교 등 30명의 주교들을 비롯하여 300여 명의 사제들이 공동 집전하였다. 이번 시복식은 복자 유스토 우콘이 국외로 추방당하여 필리핀 마닐라에서 타계한 지 402년 만이다. 다카야마 우콘의 시복은 일본 교회의 오랜 염원이었고, 시복에 대한 수속이 시작된 지 7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경사였다. 우콘은 처형되지는 않았으나 유배지에 도착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교회는 그를 순교자로서 복자의 반열에 올렸다.

그리스도 신자 영주로서

다카야마 우콘은 1552년 일본 전역에서 여러 영주들이 세력 다툼을 하며 끊임없는 전투를 되풀이하던 전국 시대에 무사 계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해는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하늘로 떠나신 해였다. 우콘은 나이 12살에 아버지 다리오와 가족 전체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22세에 다카츠키성(오사카 북쪽 약 20킬로미터)의 성주가 된 우콘은 전국 시대의 무장으로서 주변 지역 무사 계급의 각축 전에 휘말리며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우콘은 수많은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확고한 믿음과 가치관으로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였다.

우콘의 인격에서 우리나라 성실성과 현명함은 주변 많은 이들의 감화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전국 시대의 무장들은 상황에 따라 동맹과 약속을 수시로 파기하였으나, 우콘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평이 나



복자 다카야마 우콘 유스토. (1552~1614).

었다. 어떤 무장이 우콘을 믿을 수 없는 자라고 고발하자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고발한 무장을 오히려 혼내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우콘의 성실함은 많은 사람의 신임을 샀고, 우콘의 사람됨에 끌려 많은 무사들과 영주들이 차례로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영주의 자리에 오른 무장이었음에도 아버지와 함께 '미세리코르디아(자비)회'라는 신심단체에 가입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그는 이 단체 회원으로 가난한 이들, 병자들, 비천한 이들을 돕는 것을 적극 나서서 실천하였다. 그는 한 지역의 영주라는 높은 직위에 있었음에도 손수 죽은 이를 물어주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며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는 모범을 보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다.

영지를 몰수당하고 고향에서 추방

1577년 한 해 동안 우콘이 다스리는 지역 백성들 4천 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는 그의 영지에 속한 백성 대부분이 거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많은 불교 사찰이나 신사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로 있는 동안 그는 여러 곳에 교회 건물과 신학교를 건설했다.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그리스도교 금교령을 내린 뒤 우콘은 영주의 지위에서 쫓겨나 소유하던 영지를 전부 몰수당하고 고향에서 추방당했다. 다만 우콘에 대한 각별한 우정과 친교를 맺고 있던 다른 영주 무장들의 우정으로 보호를 받고 여러 곳을 떠돌며 27년간 그들의 영지에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콘은 선교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변 이웃들을 신앙생활로 인도하였다.

그러던 중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천가강)가 막부를 차지하고 일본 전체의 전권을 장악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새로 권력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4년 새롭게 그



시복식이 열린 오사카성.

리스도교 금교령을 발표하며 우콘은 국외추방 처분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로 쫓겨난다. 마닐라에 도착한 우콘은 그곳 교회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으나 마닐라 도착 후 40일 만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닐라 교회는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우콘은 그곳 예수회 성당에 묻혔다.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의 삶

400년 전의 일본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전란으로 온 나라와 백성이 짓밟히고 고통받던 혼돈의 시대였다. 무사들은 온갖 지략과 무력을 동원하여 더 윗자리로 치고 오르려고 갖은 술수와 하극상을 서슴지 않으며 신분상승만을 추구하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오히려 우콘은 거꾸로, 입었던 갑옷을 하나씩 벗고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의 삶을 산 인물이었음을 오늘의 일본 교회는 되새기고 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자신을 비운 다카야마 우콘 복자의 삶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이웃 나라인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에게도 깊이 새겨야 할 표양이요 모범이 아닐 수 없다. 



평신도 양서

정리
류주희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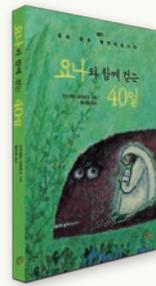
안셀름 그린 지음
윤선아 옮김/ 분도출판사
140×205/ 216면/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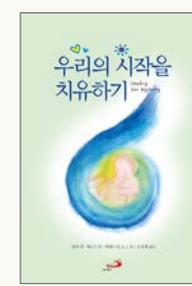
정양모 지음
생활성서사
152×225/ 356면/ 20,000원



고연심 아네스 외 49인 지음
가톨릭출판사
140×205/ 1200면/ 10,000원



안드레아 슈바르츠 지음
황미하 옮김/ 바오로딸
128×188/ 204면/ 6,000원



설라 린·데니스 린·마태오 린, S.J. 지음
문종원 옮김/ 성바오로
128×188/ 136면/ 9,000원



이충렬 지음/ 조광 감수/ 김영사
152×225/ 1권 568면, 2권 564면
각권 16,500원

당신 곁에 있을게요

- 임종자와
그 동반자를 위한 성찰

가죽 중 한 사람이 죽음 앞에 선다면 이 사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물음을 던진다.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 슬픔과 혼돈을 곁에서 버텨줄 용기를 전하며 죽음과 삶의 진실을 마주할 것을 요청한다.

'삶 한가운데에 있는 죽음을 성찰하고 더 자유로워져야 하며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친서이자 그의 눈물과 피땀이 젖어 있는 귀한 편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둘째 서간'의 해설서이다. 저자는 과거 코린토인에게 보낸 편지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바오로의 편지로서도 주해한다. 이천 년 전의 문자 해독은 물론 해당 문제를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현대적 관점에서도 풀이한다. 일세기 교회의 생생한 모습과 바오로의 사상을 엿봄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향한 바오로의 메시지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성모님,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사당5동 성당 신자들이 2012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매달 첫 토요일에 바치는 성모 신심 미사와 성모 성월 행사 때 성모님께 봉헌한 글 50편을 책으로 엮어서 펴냈다.

오랜 기간 정성스레 쓴 글을 꾸준하게 봉헌한 예는 흔치 않다. 평신도 이웃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성모님에 대한 체험과 신앙 고백의 목소리가 그만큼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만나는 성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요나와 함께 걷는 40일

구약성경의 요나 예언자와 함께 부활을 준비하게 해주는 사순 시기 묵상집이다. 요나서 각 구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또 그것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어 준다. 각 단락 끝부분에는 짙막한 말씀 카드를 제시해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안내한다. 요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하느님 사랑의 보편성, 그분의 무한한 자비이다.

독특하고 인간미 넘치는 하느님을 그린 이 책은 요나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두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한다. 삶이 무거워 어디론가 숨고 싶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명을 깨우쳐 준다.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우리는 자신의 수태를 기억한다고 한다. 수태에 관한 우리의 경험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깊은 영향을 받는다. 태내에 있을 때 무기력하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상처들은 평생에 걸쳐 수치와 두려움과 화로 번민하게 하고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간다. 이 책은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 중인 이들을 위한 필독서이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상처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피정 치유서이다. 저자들의 경험을 녹인 '스스로 하는 치유 과정'과 '혼자서 하는 치유 행동들' '태아를 위한 치유 과정'이 각 장마다 수록되었다.

아, 김수환 추기경

- 1권 신을 향하여
- 2권 인간을 향하여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김수환 추기경과 평생을 함께했다.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놓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의 '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랑과 겸손에 메말랐고 물질과 권력, 명예에 중독돼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정신을 읽는 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주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격동하는 시대를 살았던 추기경 김수환의 생애는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깊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위대한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수도회 영성

재속전교가르멜회

[Carmelo Misionero Seglar]

글 김혜숙 제르트루다 재속전교가르멜회 인천 지역 회장

재속전교가르멜회는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로부터 1996년 3월 인준된 법인 평신도 국제 사립단체이며 전교가르멜수녀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61년에 설립된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설립자이신 복자 프란치스코 팔라우 신부님의 사명을 성소로 받아들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투신하는 공동체이다.

재속전교가르멜회



“내 사명은 당신(교회)이 무한히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교회)을 사랑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명의 목적입니다.”(관계 12,2)

복자 프란치스코 팔라우 신부님은 어려서부터 신적인 힘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 손가락으로 내 마음에 다음과 같은 법을 새기셨다. ‘네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크나큰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어린 시절부터 느낀 이 열정은 청년기에 이르러 더해갔다.”라고 고백한다.

스페인과 전 유럽이 수도생활이 어려운 시기인 1832년 21살의 나이에 자신이 갈망하던 사랑의 대상을 찾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맨발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1833년 스페인 혁명으로 반교회적인 혁명분자들로 인해 성당과 수도원이 폐쇄되고 모든 수도자가 강제 추방되는 상황에서도 장엄서원을, 1836년 사제서품을 통해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였다. 자신이 머물던 바르셀로나의 맨발 가르멜 수도원이 불타버리고 수방조차 없었던 상황에서도, 당신의 성소를 지키기 위해 수도원 밖에서 수방을 찾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성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수하기 위해 고독한 은수생활과 사도적 봉사과 관상적 생활을 하였다.

1837년 2월, 스페인의 모든 수도원이 파괴되고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교황의 호소문이 반포되고, 그 응답으로 대중 사목을 위한 대중 설교에 온 정열을 쏟았다. 그러나 조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프란치스

코 팔라우 신부님은 프랑스에서 11년간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사도직과 은둔적인 관상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그 후 고국에 돌아온 팔라우 신부님은 그 시대에 신앙을 잃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기 위해 대중설교와 덕행학교를 설립하였으나 반교회적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인해 덕행학교는 폐쇄되고 이비사 섬으로 또다시 추방되었다.

이비사 안에 또 다른 작은 섬 ‘베드라’는 그가 몹시 사랑했던 수도원의 수방과 사막이 되어주었고, 그 주변 여러 섬을 다니면서 사도적 활동과 설교활동을 통해 그 섬 전체에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철저한 새신을 불러일으켰다.

1860년 어느 날, 교회에 대한 신비체험을 통해 최고의 사랑의 모체인 교회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팔라우 신부님은 이 신비체험을 통해 인격적인 교회를 만났고 그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이웃과 하나가 되는 실재임을, 그래서 교회가 무한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신비체험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성애를 느낀 팔라우 신부님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진정한 봉사는 수도회를 창립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며 1861년 전교가르멜수도회를 창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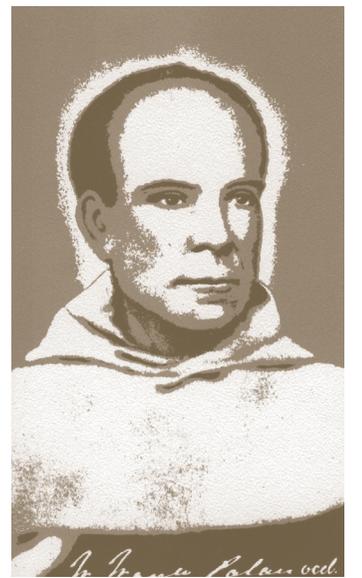
우리 재속회원은 이 시대를 사는 평신도로서, 팔라우 신부님의 사명과 그분의 유산을 받아 그 은사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재속회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삶과 사명을 장려하고, 교회의 친교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소의 위대함을 증거하며, 작은 교회의 징표가 되고 교회의 능동적인 지체가 되어 단순하고 기쁘게 생활한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과 역사의 빛을 받아 기도가 하느님의 우정 어린 사귄과 교회의 보편적인 삶이 되도록 하며, 내적 생활을 위한 개인적 여정으로서 말씀을 경청하고 숙고하며 관상적인 가치들을 장려해 나가는 삶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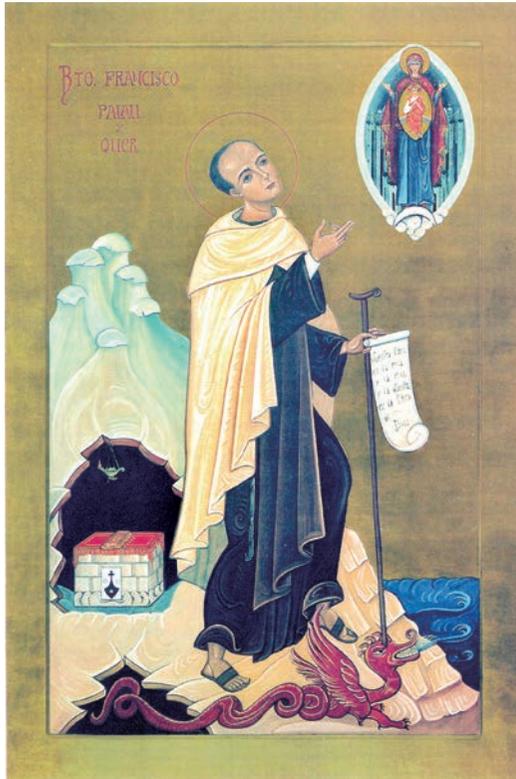
또한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긴급한 요구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는 태도로 복음에 따라 사회가 더욱더 정의롭고 연대이식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일에 협력하면서 하느님과 형제자매들과 친교를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있어서 성모 마리아를 모범이시며 어머니이시고 동반자로 관상한다.”

현재 전국에 400여 명이 이런 삶을 성소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



설립자 | 복자 프란치스코 팔라우, ocd. (1878-1959)

1860년 어느 날,
교회에 대한
신비체험을 통해
최고의 사랑의 모체인
교회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필자 또한 한국 교회의 평신도로서 이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재속회원으로서 팔라우 신부님의 삶을 보고 살아가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워졌다는 점, 그리고 그전과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경봉사와 교리교사로서 봉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지체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결합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관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이것은 교회를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커다란 체험이며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살아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역동성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나도 이 아름다운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기쁘게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오늘도 내 안에서 꿈틀대는 교회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불타오르게 한다. 

■ 연락처

카페 : <http://cafe.naver.com/cmscorea>

재속전교가르멜회 인천 지역 회장

김혜숙 제르트루다 010-5477-9211



영화 속 '시간여행, 그리고 생명 구하기'

'너의 이름은'과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이대현 요나 국민대 겸임교수 · 영화평론가

우리는 살면서 매순간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소중히 해야 한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지나간 시간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지나간 삶을 다시 선택하면서 살고, 그 선택으로 현재를 바꿀 수도 있으니.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삶과 자연의 질서를 뒤흔들고,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선(線)이고 흐름이다. 어느 누구도 정지시키거나, 건너뛰거나, 늦출 수 없다. '벤자민의 시계'처럼 결코 거꾸로도 가지 않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다. 과거는 과거의 현재이고, 현재는 미래의 과거이며, 삶은 그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흐름 위에서의 선택이다. 시간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엔 언제, 어디서나 같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지구보다 시간이 수 천 배 느린 은하계가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고, 설령 있다 한들 미지의 세계이니 의미가 없다.

그 '불가능'을 알지만, 우리는 상상으로나마 시간여행을 꿈꾼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후회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욕망은 강할지 모른다. 지난 삶에서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과 후회 때문이다. 시간여행의 소설과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랑스 작가 기욤 뫼소의 소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도 "누구나 한번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면서 애뜻하고 간절한 시간여행에 초대한다. 소설은 시간여행에 동참한 누리에게 묻는다.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실수를 바로잡고 싶은지. 인생에서 어떤 고통, 회환, 후회를 지워버리고 싶은지. 진정 무엇으로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홍지영 감독이 이국적 냄새를 맡꿈히 지워버리고 한국영화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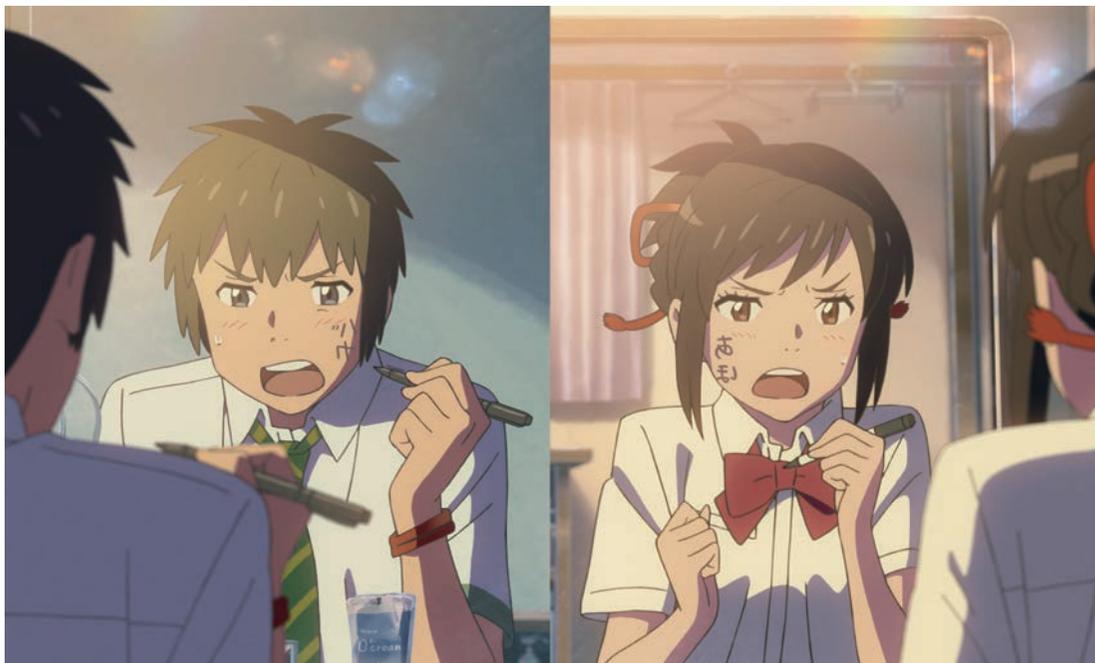
판타지, 드라마
2016.12.14 개봉 | 12세 이상 관람가
111분 | 감독 홍지영



애니메이션, 드라마
2017.01.04 개봉 | 12세 이상 관람가
106분 | 감독 신카이 마코토



‘기적’을 만나 과거를 다시 살고, 현재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미래(현재)를 바꾸면 인생에 후회는 없어질까. 지금보다 행복한 세상과 삶이 될까. 솔직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만든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다. 그래서 폐암으로 죽음을 앞둔 초로의 소아과 의사 수현(엘리엇)은 시간여행을 떠난다. 그 ‘기적’이 그럴듯한 과학적 법칙에 의해 가능하든, 영티리 주술에 의해서든 상관 없다. 시간, 횡수도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허구이고 상상이니까.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 팀(도널 글리슨)은 가문의 유전적 초능력으로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감고 주먹만 쥐면 몇 번이고 돌아가고 싶은 시간으로 이동한다. 일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감성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에서 열여섯 살의 고교생 타키와 여고생 미츠하는 꿈속에서 서로 몸이 바뀌면서 3년의 시간을 넘나든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수현을 아홉 번이나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캄보디아 노인이 준 특별한 성분도 없는 알약이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와 소설들은 시간을 필요할 때마다 되돌려, 과거를 멋대로 바꾸고, 그 결과로 현재(미래)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기도 한다. <터미네이터>처럼 거창하게 인류의 미래와 세상을 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와 <너의 이름은>은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다. 수현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30년 전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죽은 여인을 두 번이나 살려놓는다. <너의 이름은>의 타카 역시 운명적인 인연으로 이어진 미츠하를 구하기 위해 3년 전 마을에 혜성이 충돌하기 직전으로 돌아간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보다 더 간절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선택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허구일망정 영화와 소설도 그들에게 ‘시간여행’을 허락한다.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던져서라도 새로운 선택으로 과거의 후회와 아픔을 씻고 돌아올 기회를 준다.

이렇게 ‘기적’을 만나 과거를 다시 살고, 현재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미래(현재)를 바꾸



면 인생에 후회는 없어질까. 지금보다 행복한 세상과 삶이 될까. 솔직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세상에 또 하나의 ‘나’인 아바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은 두 개의 시간과 인생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 새로운 선택과 시간에도 후회와 미련은 남을 것이다. <어바웃 타임>의 팀이 끝내 사랑하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듯, 세상에는 아무리 기회가 다시 주어져도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시간이 쌓인 것이다. 이를 부정하고 버리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도, 설령 간다 해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수현도 이미 30년이란 또 다른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사랑하는 딸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절반의 선택만 했다.

시간여행은 전혀 새로운 인생, 후회 없는 선택이란 달콤한 환상만 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지금의 ‘나’를 함부로 되돌리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미래에 과거가 될 이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소중한 것들



을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충고한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의 현수도 30년 전의 자신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0년 전 자신도 나중에 후회와 회환으로 '시간여행'을 또 해야 하니까.

톨스토이는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소설에서 죽음의 천사가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늘 저녁까지도 살지 못하는 한 남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뜯어지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주문한다.

그러니 하물며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으랴. 인간은 동시에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지 못한 것의 결과 또한 모든

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매순간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소중히 해야 한다. 인생에서 후회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기억 하나쯤 갖고 있다면 굳이 영화와 소설의 상상을 빌려 '시간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은 주지 않았지만, 대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모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7년 제50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봉, 이하 한국평협)는 2017년 2월 1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한국평협 회장단, 각 교구 회장단, 회원운동 단체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0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권길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바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지만, 이 운동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며 "올해 중점사업으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타종단과의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 2호 안건으로 2016년 사업보고와 결산,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기타 안건으로 2018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평협의 지난 50년을 성찰하고 앞으로 100년을 전망하기 위한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계획안을 50주



년 준비위원회(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춘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폐막미사 강론에서 조규만 주교(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장)는 "한국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 시작되고 활성화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평신도들이 미래 한국 교회 성장에 동력이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 조 주교는 전국 각 교구 평협 명칭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구분돼 있는 것을 언급하며 "명칭 통일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 「불꽃이 향기가 되어 2」 출판기념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봉, 이하 한국평협)는 2017년 2월 1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에서 「불꽃이 향기가 되어 2」 발간을 기념하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불꽃이 향기가 되어 2」는 한국평협에서 2015년부터 평화신문과 함께 이 땅에서 빛으로 살다 간 평신도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 신자들이 그분들의 삶을 닮아가자는 취지 아래 2015년 1차년도 김익진 프란치스코, 김홍섭 바오로, 최정숙 베아트릭체,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장면요한을 선정하고 평화신문에 연재 후 「불꽃이 향기가 되어 1」을 발간했다.



2016년에는 구상 요한 세례자, 김구정 이냐시오, 김금룡 가이오, 박병래 요셉, 양한모 아우구스티노를 2차년도 인물로 선정하고 평화신문에 1년간 연재 후 「불꽃이 향기가 되어 2」를 발간하여 5명의 작가들과 선정인물들의 후손, 교회 인사, 한국평협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임을 이분들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출판기념회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책의 제목처럼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었고, 그 사랑은 이웃들로 향해 뿜어진 사랑의 향기가 되었다.”고 격려하였다. 대구대교구 장신호 보좌주교는 “평신도들은 세례 때 받은 예언자직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사제직은 날마다 미사를 참례하고 기도함으로써 왕직은 사회의 생활 실천을 통해 왕성하게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애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갈무리하여 펴낸 「불꽃이 향기가 되어 2」의 출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다음은 다섯 작가와 선정인물의 후손 대표로 김금룡 가이오 선생의 아들인 김성욱 선생의 소감이 이어졌다. 작가들은 자료수집이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고 밝혔다. 김정숙 교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김구정 이냐시오 선생 이야기 집필)는 “평신도들의 삶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 2차년도로 끝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여 앞으로도 이 사

업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불꽃이 향기가 되어 1」의 수익금 일부를 교회 내 대표 언론기관인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7년 제47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는 2017년 1월 2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길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에 따라 우리 교회가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단체나 모임에서처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제1호 안건으로 2016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승인했고 제2호 안건으로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총회 후 폐막미사는 담당사제인 조성풍 신부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조 신부는 “올해 교구는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의 해’를 살고자 한다. 미사는 교회 활동의 정점이며 교회의 힘의 원천이고,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다. 성체성사는 주님과 하나가 됨으



로써 삼위일체 신앙을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이다. 주님과 일치하는 미사에 최근 참례자가 많이 줄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회원들에게 미사에 자주 참례할 것을 당부했다.

● 서울평협 춘계연수 참가자들 ‘미사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다짐’ 봉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는 2017년 3월 4~5일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올해 사목지표인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을 주제로 춘계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는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째 날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에 관한 조성풍 담당사제의 특강이 있었고, 2018년 서울평협 창립 50주년을 맞는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에 대해 나누고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을 주제로 이창훈 기획홍보위원장의 발제와 그룹별 토의 시간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파견

미사와 함께 그룹 토의 결과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평협 임원들은 교구 사목지표인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의 취지와 의미를 먼저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미사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다짐’을 발표하고 파견 미사 중 봉헌했다.



권길중 회장은 “교구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구성원들의 일치와 요구되며, 교구장님의 사목교서가 발표된 후 본당신부님들께서 평일미사 수를 늘려주시고, 성체조배를 권장하시며, 복음 강론준비를 철저히 해주신다는 좋은 소식에 자극을 받아 다짐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미사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다짐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을 주제로 2017년 춘계연수에 참가한 서울평협 임원들은 교구장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인 미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다지고 희망을 더욱 키우며 사랑을 더욱 넓히고자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정성을 다해 미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 단정한 복장으로 적어도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성당에 와서 미사를 준비하겠습니다.
 -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그날 미사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 우리는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성가를 열심히 부르며, 교우들이 함께 바쳐야 할 부분을 정성을 다해 바치겠습니다.
 - 옆 사람과 잡담하거나 주보를 보거나 하지 않

고 오로지 미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3. 우리는 올바른 몸과 마음가짐으로 미사에 참여하겠습니다.

-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지 않고 경건한 자세로 미사에 참여하겠습니다.
- 미사 중 동작(성호 굿기, 앉고 서고 무릎 꿇기 등)도 경건한 자세로 하겠습니다.

4. 우리는 정성을 다해 성체를 모시겠습니다.

-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지극한 정성으로 성체를 모시겠습니다.
- 성체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 영성체 한 시간 전부터 생수 외에는 어떠한 음료나 간식도 섭취하지 않고 공심재를 잘 지키겠습니다.

5. 우리는 미사에서 받은 은총을 주위와 나누겠습니다.

- 미사의 은총에 감사하며 말과 표양으로 주님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6. 우리는 미사에 자주 참여하겠습니다.

- 주일 미사는 물론이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평일 미사에 참여하겠습니다.
- 자주 성당에 들러 성체조배로 주님과 대화하며 일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 우리는 미사의 참 의미를 더욱 깨닫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미사의 참 의미를 깊이 깨닫고자 미사 전례에 관해 공부하고 교육에 참여하겠습니다.
- 미사성제를 거행하는 사제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우리의 다짐을 모아 오늘 연수 파견 미사 때에 주님께 봉헌합니다.

2017년 3월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준계 임원 연수 참가자 일동

● 평신도아카데미 「리더십과정」 개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 평협)는 2017년 3월 6일, 서

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에서 155명의 수강생들과 2017년도 평신도아카데미 「리더십과정」을 개강했다.



평신도 아카데미는 평신도들이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영성을 기초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복음의 등불로서 가치를 드높여 사명을 구현해야 한다는 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스승과 같은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평신도를 양성하고자 개설된 과정이다. 봄 학기에는 기초신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리더십과정」을, 가을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공의회과정」을 열고 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리더십과정」은 2016년 수료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5주에서 12주로 기간을 줄이고 강의 내용은 더 알차게 수정하여 수강생들이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월 29일(월), 12주차 강의 후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평단협 제47차 정기총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박원규, 담당사제 김명현, 이하 대전평단협)는 12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위치한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교구 사목지표인 "시노드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사는 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는, 교

구 내 84개 본당과 16개 단체에서 280여 명의 본당 회장단과 사도직 단체 임원, 대전평단협 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평협 권길중 회장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취지 강의와 총대리 김종수 주교 주례로 개회 미사가 봉헌되었다.



미사 후 대전평단협은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갖고,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다', '우리는 각자의 소명을 직시하여 삶의 바탕으로 삼는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아간다', '우리는 교구 시노드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의 발전에 협력한다'는 4가지 주제를 발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23대 박원규(토마스 아퀴나스, 문화동) 대전평단협 회장이 임기를 마침에 따라, 24대 회장에 김광현(안토니오, 탄방동) 씨가 선임되었다.

● 24대 평단협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사제 김명현 신부, 이하 평단협)는 12월 26일 오

후 7시, 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제24대 평단협 상임위원 출범 미사 봉헌과 임명장 수여식'을 하였다.

제24대 김광현(안토니오) 회장을 비롯해 김기태(도미니코) 수석부회장, 최경찬(안젤라) 여성부회장 등 19명의 상임위원이 교구장 주교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 회장은 "부족한 제가 회장에 선출된 것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미약한 힘이지만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 방침이 잘 이행되도록 대전교구 평신도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잡고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17년 지구사목회장 및 평단협 상임위원 회의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사제 김민희, 이하 평단협)는 '2017년 지구회장 및 평단협 상임위원회의'를 1월 21일 오전 10시 대전교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총대리 주교 외 각 지구회장 및 평단협 상임위원 34명이 참석하여 '2017년 대전교구 평단협 사업계획' 및 '지구 내 평신도들의 활동 및 계획'에 대한 나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대전남부지구 회장과 서산지구 회장의 감사 임명장 수여와 그동안 수고한 4명의 지구회장 선물 전달식이 있었다.

● 24대 평단협 상임위원 워크숍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사제 김민희, 이하 평단협)는 2월 4일 유성구 갑동에 위치한 곤솔라따 선교수도회에서 '상임위원 위

크숍'을 개최했다.

24대 출범 후 본격적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워크숍은 2017년 사업계획 안내와 예산 안내, 대전평단협의 주력 사업인 한생명운동 강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분과별 업무 분장 및 평단협 조직 안내 등 대전교구 24대 평단협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세계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



2017년 1월 2일 10시 30분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곽하형, 담당사제 오용호) 주관으로 세계 평화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미사 중 강론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

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셨으니,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서로를 대하는 새해가 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 교구 평협 임원 임명장수여식 및 감사장 수여식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오용호)의 임원 임명장 및 감사장 수여 미사가 2월 22일 교구청 5층 소성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정 주교는 강론에서 “사랑이란 무엇보다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선한 정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봉사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수여 미사에서는 곽하형 야고보 회장 외 19명이 임명장을, 13명의 퇴임 임원들이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정 주교는 퇴임하는 임원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임원에게는 신앙인으로서 사랑으로 봉사에 임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7 수원교구 평협 상임위원 및 임원 연수 실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월 4일부터 5일까지 ‘연간 복음화계획과 예산 심의’ 등 2017년 평협 사업 심의를 위한 연수를 대리구 평협 회장과 교구 평협 임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주에서 실시하였다. 수원교구 평협에서는 매년 초에 사업 및 예산 심의

를 위한 연수를 1회 개최하고 있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연수 및 사목방문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2월 25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23개 단체 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연수 및 사목방문을 실시하였다.

복음화 국장 겸 영성지도를 맡은 이근덕 신부의 2017년 교구장 사목방침인 “말씀과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쉼”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고, 각 단체 사목방문 자료검토, 애로사항, 건의사항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총대리 이성호 주교의 주례로 파견 미사와 특강이 이어졌다. 이 주교는 교구민의 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목교서 설명에 대한 강의 후 토론, 교회의 가르침 및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에 대해 강조하셨다.

수원교구 각 단체는 주교님께 매년 상반기에 사목방문을 받고 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7년 제48차 원주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는 2017년 2월 4일~5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치악초소년수련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원주교구 복음화사목국장(신동걸 신부)은 올해 사목교서 ‘하느님 은총에 응답하는 신앙의 해’ 사목교서 해설과 참석한 임원들에게 평협 활동에 많은 협조를 구했다.

4일 행사에는 기도학교 건립을 위한 분임토의를 통해 건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또한, 만남의 시간에는 2017년 새로 임명된 임원들의 상견례와 화합의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5일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감사 보고와 올해 평협 사업승인이 통과되었고, 교구장(조규만 주교)은 특강에서, “50주년을 지나 100주년을 향하는 시점에서 사목교서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성직자와 신자들의 소통을 강조하고 순교자의 열을 새겨 신앙으로 발전하는 교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17년 신년하례식 및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 학교 건립 설명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담당사제 신동걸)는 2017년 1월 7일 관내 단구동성당에서 교구장(조규만 바실리오 주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

행사를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 원주교구 평협 임원 및 단체장 그리고 본당 사도회장 400여 명이 참석하여 교구장 주교의 덕담과 새해 활동에 대한 다짐이 있었다. 교구장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올해도 교구와 본당 발전과 공동체 일치를 위해 봉사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 원주교구 숙원사업이던 기도학교 건립을 위한 설명회가 열려 기도학교의 필요성과 건립에 필요한 보고와 설명이 있었다. 원주교구는 향후 2년간 180억의 기금 모금을 통해 연면적 2,600평 규모 다중 시설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교구설립 50년을 지나면서 지난해부터 준비한 건축위원회는 기본 설계를 진행하여 올해 6월 기공식을 갖고 완공은 2018년 9월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00여 명의 건축위원회 평신도 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7년 의정부교구 단체장 제1차 정기모임



의정부교구 평단협(회장 한효수 바오로, 담당사제 이재화 안셀모)은 1월 3일 오후 5시 의정부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의정부 평단협 산하 '단체장 제1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기헌 교구장을 대신해 한만옥 토마스 총대리 신부가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19개 단체 회장 및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의정부교구 공동체 발전 방안과 단체 간 상호 정보교류 및 교구 단체 봉사자 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만옥 총대리 신부는 "의정부교구 단체장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변하고, 나아가 사회의 변혁까지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사제인 이재화 신부는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인 냉담자 증가에 대한 염려와 단체장의 임무 노력"을 강조하고 "이기헌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남북 평화 기도의 적극 참여"를 부탁하였다.



한효수 평단협 회장은 지난 2016년 물심양면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2017년 평단협 중점 사업을 보고하고 각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기모임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2017년 한 해 의정부 평단협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교구 평협 제42차 정기총회



지난 2월 5일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부산평협 제42차 정기총회가 350여 명의 본당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총회는 선교사목국장 장재봉 신부의 '교구장 2017년 사목 지침 해설', 그룹 토의, 교구 및 울산대리구 평협 정기총회,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세로, 한 해 동안 본당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 미사 중에 선교상, 평신도 교리교사 공로상(15년, 10년, 5년), 사랑·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8회 복음화대상 시상식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안상덕 다니엘, 담당사제 황병석 파스칼)는 2월 11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제47차 정기총회와 제8회 복음화대상 시상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구 내 본당 회장, 교구 단체장

및 임원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는 개막 미사 후 황병석 신부의 특강과 지구별 오리엔테이션, 교구 평신도사도직 활동지침서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제2부는 정기총회와 복음화대상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운 감사로 이화수(다미아노, 북산동본당) 형제가 선출되었다.

'복음화대상 시상식'에서는 '선교대상'의 단체 부문에는 '천상은총의 어머니 Pr.(중동본당)'과 개인 부문에는 '김순덕 자매(헬레나, 명서동본당)'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회두대상'의 단체 부문에는 '거룩하신 어머니 Pr.(덕산동본당)'과 개인 부문에는 '남영우 형제(그레고리오, 경화동본당)'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신년하례식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

사제 김정용)는 1월 1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 및 교구단위 제 단체 대표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과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먼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한 후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는 새해 첫날을 맞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총대리 옥현진 주교가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과 함께 2017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 평협(46차) 및 여성위원회(13차) 정기총회 개최



광주평협은 1월 21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평협 제46차와 여성위원회 제13차 정기총회를 함께 개최하였다.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과 여성대표, 교구단위 제 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총회에 앞서 '본당 공동체를 위한 사목회 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최윤복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 본당 사목협의회 및 단체평협 연수회



광주평협은 2월 25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위원 및 교구단위 제 단체 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교구장 사목비전'의 주제로 사목국장 김정용 신부의 특강과 '자비의 희년 실천사례와 방안'의 주제로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장 최기원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또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대하여 나현식 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7년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전주평단협)는 1월 14일 전주교구청 강당에서 회원단체장과 전주평단협 임원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 사업보고와 결산,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을 하였다. 또한 회칙개정을 통해 평단협 부회장 인원을 2명에서 약간 명으로 변경하였다. 올해 사업에서는 사제 격려금으로 지출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며, 교구보조금과 별개로 평단협 소속단체회원들의 자체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구 소속의 제단체 등록여건을 분명하게 마련하여 교구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연말에는 활동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확정하였다.

● 전주교구 설정 80주년 기념사업 개최 관련 협의회



전주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이하여 2월 11일 전주교구청 회의실에서 전주평단협 주관 기념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회원단체장과 전주평단협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평단협에서 평신도사도직단체가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전주교구 설정 80주년이 되는 2017년을 맞이하여 좀 더 세밀하게 의미와 활동사업을 살펴보았다.

한편 교구에 보고하는 단체별 사업내용 가운데 80주년 기념사업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평단협에서 일부 사업예산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제35차 정기총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는 2017년 2월 18일 부산교구 주례성당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15개 교구 회장단과 각 교구 내 외빈 등이 참석했으며 임기를 마친 제14대 김태영(바오로) 전 회장과 임기를 시작하는 제15대 이충원(라파엘) 회장의 이취임식 및 새 회장 선서식이 함께 진행됐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충원(라파엘) 회장은 기념사에서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을 마음에 새기며, 각 교구와 지구 협의회의 교육을 지원하고 청년 국내외 봉사 활동을 통한 조직 확충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전국협' 2016년도 정기총회 및 2017년도 사업 승인 및 임원 선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김현조, 담당사제 김영철)는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 교구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전국 각 교구에서 38명의 회원(추천회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예산안을 추진했다.

총회에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시다"를 올해의 활동목표로 정하고,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 '봉사자기본교육', '은사학교' 등의 지속적인 실시와 함께 '전문 봉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성령대회'(9월 10일, 음성 꽃동네), '젊은이 성령 축제'(5월 21일, 장소 미정) '나눔 피정 회원 간담회' (10월 16일~17일, 장소 미정) 등을 승인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28일 사제 총회에서 '전국협' 대표 담당사제로 선임된 김영철 베드로 신부(의정부교구)의 취임식과 함께 운영수 스테파노 부회장(대구교구 청도본당)을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레지오 마리아 전국 세나투스 협의회

● 전국 세나투스 협의회 개최



레지오 마리아에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등 한국의 3개 세나투스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목포와 강진에서 전국 세나투스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첫째 날에는 한국 최초로 레지오 마리아가 도입된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시작기도와 미사를 봉헌했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강진으로 이동하여 각 세나투스에서 준비한 의제를 가지고 레지오 관리와 운영에 대한 현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그 개선책 및 전국 통일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강진 성전공소에서 미사로 시작된 둘째 날에는 다산초당을 방문하고 청자 박물관을 견학하는 등 남도의 문화를 체험을 했으며, 다음번 협의회 개최지를 대구로 결정하고 1박 2일의 일정을 끝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 세나투스 담당사제인 정영진 도미니코 신부와 광주 세나투스 담당사제인 이정화 가비노 신부가 모든 일정을 세나투스 간부들과 함께 하였다.



'다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goo.gl/DEoioe>

우리성가

공모



제10회 우리성가노랫말 공모

- 마감: 2017년 5월 31일(수), 6월 초 발표
 - 자격: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 접수: 1인 5곡까지 출품 가능, 한국평협 홈페이지 노랫말 공모 응모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 한국평협 사무국 02)777-2013, www.dak.or.kr
 - 시상: 최우수상 1명 / 상패와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 상패와 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 / 상장과 상금 30만원, 입선 0명 / 상장과 기념품
- ※ 수상작은 제11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에 사용됩니다.

• 노랫말 내용 •

- ① 복음 선교와 관련한 내용
- ② 성경과 전례서를 근거로 하며 신앙적 영감을 키울 수 있는 것
- ③ 일정한 운율을 갖추어 작곡하기 쉬운 길이
- ④ 미사전례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제11회 우리성가작곡 공모

- 마감: 2017년 9월 22일(금) ※ 당일 우체국 소인우표, 10월 중순 발표
 - 자격: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 접수: 1인 1곡 출품, 한국평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 혹은 우편접수
 - 접수처: 위) 04537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510호, dak@catholic.or.kr
 - 시상: 최우수상 1명 / 상패와 상금 200만원, 우수상 2명 / 상패와 상금 100만원, 장려상 3명 / 상패와 상금 50만원, 입선 0명 / 상장과 기념품
- ※ 수상작 악보는 전국 본당 성가대와 가톨릭 합창단에 배포됩니다.

• 작곡 공모 요령 •

- ① 노랫말은 한국평협 우리성가 노랫말 수상작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 단, 노랫말의 임의 수정 불가 * 노랫말은 www.dak.or.kr 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 ② 가톨릭교회 전례에서 신자들도 또는 우리성당 성가대가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2성부 이상의 합창곡
- ③ 오르간 반주곡 (반주곡 합창곡은 3성부 이상이어야 함)
- ④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오르간 반주 파일(MR) 제출
* 악보와 음원은 심사용으로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Editor's Letter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 촛불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장편소설 『대지』의 작가로 알려진 미국인 소설가 펄 벅(1892~1973)이 인용한 중국 속담입니다. 그녀가 1960년부터 3년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수난사를 담은 『살아있는 갈대』를 출간하고, 이 땅에 한국전쟁 고아와 혼혈아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을 듯합니다.

펄 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 나라의 주변의 세 나라-중국, 러시아, 일본-에는 여러 세기 동안 잘 알려져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서구 사람들에겐 아시아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어두웠던 이 땅에 환하게 새 봄이 왔습니다. 지난해 봄 계간 『평신도』 편집 책임을 맡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감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 봄은 한국 교회 평신도들에게 시대의 징표를 읽는 눈과 신앙감각이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한국평협은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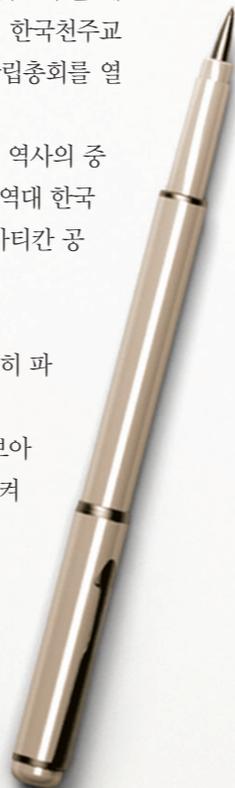
“1968년 7월 23일. 대전 대흥동주교좌성당. 당시 전국 12개 교구 가운데 원주교구를 제외한 11개 교구 평신도 대표와 8개 단체 대표 등 2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전신인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 교회 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 장면입니다.”

계간 『평신도』는 이번 호부터 한국평협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며 한국 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돌아보는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을 연재합니다. 또 생존하는 역대 한국 평협 회장들을 만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터뷰 기사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글도 연재합니다.

“다다라 보아야 별 것이 아닐세/ 노산은 여전히 안개로 덮이고/ 절강은 여전히 파도가 치네.”

소동파의 시구처럼,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 되풀이되고, 다다라 보아야 별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 촛불 하나라도 켜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7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이하나	가브리엘라	clas@catholic.or.kr
춘천평협	유효현	알렉산델	hyohyeon7013@daum.net
대전평단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유병수	멜키올	mkoo204@hanmail.net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이익태	마르코	ssvpk@hanmail.net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박배규	베드로	webmaster@blindmission.or.kr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